

『승사록』 속 주체의 ‘감성’ 변모 양상에 관한 一考*

박상영**

<차례>

1. 문제 제기
2. ‘불안(不安)-안(安)’ 속 낙관주의: 반동일화의 미학
3. ‘열락(悅樂)-슬픔(悲)’의 혼재 속 자기 인식: 동일화의 미학
4. ‘불안(不安)’ 속 향수(鄉愁)와 역사인식: 반동일화의 미학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세기 영남 선비 최두찬(1779~1821)의 강남 여행기, 『승사록』의 담론 구성 방식과 그에 따른 작자의 미세한 감성 변모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승사록』은 19세기에 전하는 강남 표해 기록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에도, 오랫동안 여타 표해록에 비해 학적 관심이 미비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논구된 바 없는 『승사록』의 담론 특성 및 작자의 감성 변모 양상을, ‘주체(최두찬)-대주체(환경)’의 관계 맺음이라는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하였다.

먼저, 『승사록』은 크게 3부로 나뉘는데, 첫째는 제주 출항~보타산 표착까지인 1818년 4월 10일~ 26일까지로, 설레는 마음이었다가 풍랑을 맞아 생사가 기로에 놓이면서 표류 자체가 주는 무서움, 불안함, 무기력함 등의 감성을 드러내며, 이 과정에서 대주체와 조화롭지 못한, 반동일화의 미학이 발견된다. 둘째 강남문화 체험기 부분은, 주체가 ‘열락(悅樂)-슬픔(悲)’의 감성 속 자기 인식을 뚜렷이 드러내는데, 이전에 불안했던 감성이 안정감으로 대체되면서, 주체의 시선에 새롭게 포착된 강남 풍경들, 강남 문인들과의 동류의식 및 정서적 합일 등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음

* 본 연구는 2023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을 볼 수 있고, 대주체와 동조하고 심정적 동일화를 이루는 면모가 다채롭게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귀국·송환기(6월 10일~10월 2일: 석문~의주까지)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역사에 대한 회고, 청에 대한 반감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불안(不安)의 감성 속 鄉愁의 정서가 주류를 이루며 주체를 둘러싼 대주체와 어긋난 감성, 반동일화의 미학 등이 새롭게 발견된다.

사실 출범-표류-귀환이라는 일정한 패턴의 표류기의 담론 특성 속에서도, 시기별 갖는 경험은 새로운 의미와 감성을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시, 공간 이동에 따른 작자의 감성 변화가 텍스트 상 어떤 담론 방식으로 표출되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자간에 숨어 있는 작품의 미세한 결을 찾아 작품 전체의 내적 원리를 파악하는 단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하나의 문학 작품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다.

□ 최두찬, 『승사록』, 감성, 주체-대주체, 동일화-반동일화

1. 문제 제기

우리의 고전 작품 중에는, 원하던 원치 않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경험하고 이를 하나의 기록으로 남긴 일련의 글들이 있다. 그 중, 生死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기록들은 당대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표류기이다. 사람마다 표류 동기는 달랐지만, 이들 표류기는 대체로 출항, 표류→표착, 낯선 풍경들 경험→귀국, 송환이라는 세 단계를 한편의 장편 서사로 펼쳐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낯선 곳의 풍습, 경물, 언어 등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당시 가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기도 했다.

19세기 영남의 선비 최두찬(1779~1821)이 남긴 강남 여행기, 『승사록』

도 바로 그러한 기록물 중 하나이다. 『승사록』¹⁾은 최두찬이 1818년 4월 8일 제주에서 나주로 향하던 중 풍랑으로 중국(정해현)에 표착 후,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체험을 날짜별 노정기 형식으로 적은 것이다. 19세기에 전하는 강남 표해 기록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15세기 최부의 『금남표해록』에 비해 학적 관심이 미비했다. 여기에는 『금남표해록』에 비해 『승사록』이 상황 묘사나 사실 기록 등 표류 체험의 형상화에 있어서 이전 작품에 필적하지 못하며 이에 작품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편견도 한몫했다.²⁾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승사록』이 갖는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의식과 작품을 보다 깊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성이 제기되면서, 『승사록』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³⁾ 및 표해록군 작품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던⁴⁾ 초기와는 달리, 작품 해석의 기본이 될 서지 사항에 대한 검토⁵⁾를 비롯

- 1) 규장각본 『승사록』은 3권 1책 87장의 필사본으로, 표제는 ‘罷睡篇’이며, 卷首에는 ‘慈仁復設疏’를 필두로 自序가 실려있고 卷末에는 ‘大韓光武元年(1897년)陰曆陽月初九日鶴城畢書知印崔福述在鶴城時’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사록』의 이본인 성균관대 도서관본 <江海乘槎錄>은 2권 1책으로, 詩賦만 따로 모아 卷之一에 넣고, 卷之二에는 표해일기와 부록으로 나누어 표해기록을 재배치하고 있다. 『승사록』의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하다(김성진, 『『江海乘槎錄』의 書誌事項과 唱和紀俗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6집, 동양한문학회, 2008, 142~143쪽).
- 2) 『금남표해록』과 『승사록』은 330년의 시간차가 있고, 여러 면에서 비슷하나 차이도 있다. 최부는 43명의 일행으로, 제주에서 1월 3일 표류해 寧波에 도착, 蘇州 杭州 北京 등을 경유해 의주를 통해 전원 귀국했고, 최두찬 일행은 50여명으로 16일 표류했지만 송환 도중 몇몇을 잃기도 했다. 또, 최부는 귀환 후 왕명으로 표류 체험을 기록했지만, 최두찬은 강남에 표착한 후 그 체험을 기록한 것과 도처에서 중국 문사들과 창화한 것을 갖고 있다가 귀국 후 이를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다. 이로써 『금남표해록』이 각종 문헌에 두루 인용되고 이본이 많지만, 『승사록』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윤치부, 「표해류 작품의 종합적 고찰」, 『고전산문연구』1(국어국문학학회 편), 태학사, 1998.
- 4) 최래옥, 「표해록연구」, 『최부표해록연구』(葛振家 主編), 사회과학문헌출판사, 1995.
- 5) 김성진(2008), 위의 논문 참조.

해, 『승사록』을 중심으로 19세기 표해록의 변모 양상을 세밀히 찾아 그 위상을 새롭게 검토하려는 노력⁶⁾이 의미 있게 제기되었다. 이에 힘입어, 최두찬의 『승사록』을 중심으로 조선인이 본 청 중기 중국 풍정에 대한 논문⁷⁾은 물론, 어느 한쪽만이 아닌, 한중 문인들의 상호 인식 층위에 초점을 둔 논의⁸⁾, 『승사록』에 담긴 최두찬의 사상, 이념, 강남의 풍경에 대해 보다 세밀히 살펴보려 한 시도⁹⁾ 등도 의미 있게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들과 또 다른 방향에서 ‘표류’의 경험 자체보다는, 그가 남긴 필담과 시문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문학적으로 분류하고 의미를 되새기려 한 문학 내적 측면에서의 작업¹⁰⁾과 역사적인 사료와 실증적인 논정을 제시하면서 조선인 표류 기록의 역사 교육적 의의와 활용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 한 연구¹¹⁾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 연구는, 기존의 성과들이 여전히 대부분 표류자의 표류 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그 역의 경우를 구명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반성에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승사록』을 살펴보려 한 노력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처럼 『승사록』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주목받으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표류 과정, 중국에 대한 인식

6) 이은주, 「19세기 표해록의 모습과 변모양상-최두찬의 <승사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9집, 국문학회, 2003, 151~180쪽.

7) 범금민, 「조선인이 본 청 중기 중국 풍정 - 최두찬의 『승사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참조, 2008.

8) 박동욱, 「최두찬의 『승사록』에 나타난 한중 지식인의 상호인식」, 『한국학논집』45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7~40쪽.

9) 박명숙, 「『승사록』에 나타난 최두찬의 이념과 실천, 그리고 강남」, 『고전과 해석』15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3, 81~106쪽.

10) 티엔 위, 「최두찬의 『승사록』에 나타난 필담과 시문 창화」, 선문대 석사논문, 2018, 1~109쪽.

11) 박선영, 「조선인 표류 기록의 역사교육적 의의와 활용 방안」, 고려대 석사논문, 2020, 1~85쪽.

변화, 표류 체험 등에 한정된 감이 크고, 문학 작품으로서 『승사록』 자체의 내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한 편이다. 후술하겠지만 『승사록』은 『금남표해록』 못지않은 심경 변화, 미세한 감성의 변화가 시, 공간 이동에 따라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게다가 기존의 어떤 강남 체험기에도 없는 19세기 청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담은 정보¹²⁾는 물론, 明·淸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 중국 지식인의 타자 인식 등 여러 가지 문학적·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 시문과 필담 중심의 담론 구성 방식으로, 일면 건조할 수 있는 서사 중심의 기록에 서정성이 가미되어 서정·서사의 묘한 내적 긴장감이 문학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도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작자가 낯선 공간 속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미묘한 감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논구된 바 없는 『승사록』의 담론 특성 및 작자의 감성 변모 양상을, ‘주체(최두찬)-대주체(환경)’의 관계 맺음이라는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한다. 사실 출범-표류-귀환이라는 일정한 패턴의 표류기의 담론 특성 속에서 서도, 시기별 갖는 경험은 새로운 의미와 감성을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 공간 이동에 따른 작자의 감성 변화가 텍스트 상 어떤 담론 방식으로 표출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자간에 숨어 있는 작품의 미세한 결을 찾아 작품 전체의 내적 원리를 파악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자 하나의 문학 작품을 오롯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찍이 페쇠(Pêcheux, Michel)는 주체가 담론 구성체를 지배하는 대주체와 갖는 관계 양상을 동일화, 반동일화, 비동일화의 세 차원에서 범주화한 바 있다. 여기서 문학적 개념 적용이 쉽지 않은 비동일화를 제외한 나머지

12) 한 예로, 청대 중기 조선인이 운하 전 구간에 관해 남긴 기록은 최두찬의 『승사록』이 유일하다. 이 수로에 있는 수차나 선박에 대한 언급도 그의 <舟車說>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지 두 개념은 본 논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르면 ‘동일화’는 주체가 당대 지배담론인 대주체에게 순종하는 형태를 띠는 반면, ‘반동일화’는 대주체가 부여한 담론에 대해 분리, 거리감, 의심, 질문, 도전, 반역 등의 태도를 드러낸다.¹³⁾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대주체를 구성하는 힘과 이를 인식하는 주체 간에는 표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된다.¹⁴⁾ 표착 후에도, 중국에 대해 최두찬은 일관되게, 명/강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청/강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등 복합적인 층위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대단한 文才가 있었지만, 정치적 소수자로서의 최두찬의 입지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대주체는 시적 화자의 현실적 처지에 따라 주체의 인식 속에서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 등 양가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반 양상을 통해 표류할 때의 최두찬과 강남 문화를 체험할 때의 최두찬, 그리고 귀국·송환길에서의 최두찬의 처지 및 감성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13) ‘비동일화’는 저자 스스로도 이미 지적했듯, 반동일화와 동일화 둘을 통합하는 형태를 띠는 것으로 사고의 층위에서 변형의 문제이지, 지배적으로 부과된 의미들과 정체성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문학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폐쇄의 이론 및 그 문학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맥도넬의 논의를 참조(D. Macdonell, 『담론이란 무엇인가』(임상훈 역), 한울, 1992, 152~156쪽).

14) 본고에서는 폐쇄의 주체-대주체의 개념을 차용하되, 주체를 시적 화자(인식 주체)와 동일한 의미로, 대주체를 이러한 주체를 둘러싼 환경, 곧 당대 최두찬이 처해 있던 지배담론으로서 본다. 그런 점에서 표류 과정에서 ‘대주체’는 표류 상황(자연 환경) 그 자체가 되며, 표착 후에는 중국이 된다.

15) 『승사록』은 논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4월 8일~30일까지가 표류하다 육지에 도착한 시기, 5월 1일~6월9일까지가 절강성 체류 시기, 6월 10일~10월 2일까지가 귀국, 송환기로 본다.

2. ‘불안(不安)-안(安)’ 속 낙관주의: 반동일화의 미학

『승사록』은 3권 1책, 노정별 구성으로 앞에 심기장과 서정옥의 서문이 실려있다. 이어 1818년 4월 10일 본격적인 표류에 앞서, 에필로그 격인 책의 저술 동기를 집약해 놓은 글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장건의 고사를 이용해 『승사록』이라 제목 달게 된 이유에 바로 이어서 제주에 있을 때 지은 시 4편을 수록했는데, 섬에 있을 때 지은 詩稿를 시주머니에 담았다가 표류 도중 모두 잃어서 기억을 겨우 되살려 몇 편을 쓰니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보아, 최두찬의 詩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시작되는 4월 8일의 기록은, 최두찬 일행이 출항 전 제주 관덕정에서 전별연의 즐거움과 설렘 속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10일 제주를 떠나 오후 4시경 풍랑을 맞으면서, 일행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순식간에 배 안은 이수라장이 되고 만다.

① (4월 8일~11일까지의 기록) 오후 4시경에 큰 비바람이 불고 장기(瘴氣)가 긴 안개로 사방이 꼭 찼다. 사나운 파도가 배를 쳐서 배가 자주 기우뎡거렸다. 해는 순식간에 어둡고 캄캄해졌다. 뱃사람들이 두려워 해결 방도를 찾지 못했다. 선주와 뱃사공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목 놓아 우니. 남녀를 통틀어 50명의 사람들도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였다...(중략)...다음 날 새벽까지 잇달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다 멈추다 하였다. 미친 듯한 파도와 성난 물결에 사방을 돌아보아도 끝이 없었다. 나는 “莫非命(운명 아닌 것이 없다)”라는 석 자로 김 군을 위로하고 힘쓰도록 하였다. [서로 함께 부여잡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다.] 이때 배 안에는公私馬 50에서 60마리가 함께 실려 있었다...(중략)...그러자 뱃사람들이 비로소 묶어놓은 말을 풀어 바다로 던지지는 의논이 있게 되었다...(중략)...그러나 나는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다고 생각해 짐짓 가부를 결정하

진 못하였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 배가 거의 뒤집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나는 사람이 다쳤는가만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을) 바다에 던지니, 배가 조금 안정되었다.

② (4월 18일) 북풍이 또 부니 (배가) 물결 따라 흘러갔다 왔다 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앞서 물 항아리가 이미 깨져 죽을 못 끓이게 되었다. 사람들 모두 쌀을 씹어 넘기니 배고픔과 목마름이 따라왔다. 이에 비로소 바닷물을 끓여 물을 얻자는 의논이 있었다...(중략)...사람들은 모두 병들어 누워 있는데, 나는 병든 몸을 부축 받아 일어나 글을 지어 하늘에 고하였다...(중략)...배는 어찌 도움이 없으며, 바다는 어찌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지극히 신령한 자, 신이시니 각기 직책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남모르는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큰 육지로 인도해주소서.”라고 하였다. 나는 이런 말이 이치에 맞지 않아 망령됨을 알고는 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괴롭고 아픈 호소를 짓는 것이다.¹⁶⁾

全羅右營의 토포사로 있던 장익(최두찬의 종자형)으로부터 서찰로 초대 받아 약속한 날 함께 나주 감영으로 향하려던 때만 해도, 즐거운 감성이었을 테지만, 이처럼 풍랑을 맞아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자 사정은 180도 달라진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최두찬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다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람의 목숨을 위해 말을 바다에 던지는 선택을 한다^①).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의 순간에는 과감히 인간 중심적 사고를 보여준 것이다. 12일부터 17일까지는 바람에 따라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 물길을 헤아릴 수도 없고, 비탈진 땅에 배를 댈 줄 알았다가도 여의치 않자 당황하기도 하며(17일), 방향도 알 수 없는 막연

16) 본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는 『승사록,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표류기』(최두찬 저, 박동욱 옮김, 휴머니스트, 2011)이며, 원문/주석 관련하여, 규장각본과 성균관대 도서관본을 같이 살폈음을 미리 밝힌다.

함, 불안감 속 식량난으로 인한 갈증과 배고픔까지 겪게 된다. 여기서 풍랑으로 인한 모든 자연재해 및 상황들은 최두찬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대주체라고 할 수 있다.¹⁷⁾

최두찬은 이러한 대주체의 횡포를, 그대로 수용하고 포기하는 대신, 살고자 하는 의지를 한 편의 글로서 보여준다. 즉 처음으로 海王과 船王의 신에게 고하는 글을 남긴 것이다^②). 그런데 스스로 짓고도 말이 이치에 맞지 않고 망령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아픈 호소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표류 자체가 주는 무서움, 불안함, 무기력함 등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맞서고자 하지만 그것이 부질없음을 뼈아프게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나약함도 느껴진다. 대주체와 조화롭지 못한 상황(반동일화) 속에서 극복하고자 해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애처롭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후 풍랑이 가라앉자, 최두찬은 언제 그런 불안감 속에 있었느냐는 듯, 긍정적인 감성을 한 편의 시로 표현해 낸다.

③ (4월 19일) 바람이 조금 누그러지자 바다 빛이 맑고 깨끗하였다. 아침 해가 바다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해가 떠오르려고만 하고 아직 떠오르지 않았을 즈음에는 붉은 파도와 흰 물결이 만 리를 밝게 비추어 빛났으니 근심 속의 즐거움이었다. 이에 <적벽사> 한 편을 읊고, 이어서 시 한 수를 지었다. ‘똥 인생 장수나 요절이나 슬퍼할 게 못 되니/인생의 정한 운명은 전생 기약이 있네./오늘 아침에 바람과 파도가 조금 잦으니/병든 객 한가롭게 적벽사 읊는다.’¹⁸⁾

17) 최두찬에게 시련을 준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같이 승선해 있던 탐라인들과의 갈등이었는데, 함께 표류하고 돌아와 기록으로 남긴 양지회의 <표해록>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승사록』에서는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다(박진성, 「신자료 梁知會의 『漂海錄』 연구, 『어문연구』44집, 한어문교육연구회, 2016, 365~392쪽).

18)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浮世彭殤不足悲 人生定命有前期 今朝小得風濤歇 病客聞吟赤壁詞.’

여기서 보듯, 풍랑 속 ‘불안한 감성’은 잠시 안도의 기쁨으로 바뀌고, 그 즐거움은 바로 인생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즉, 인생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 장수, 요절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이날은, 魚船이 지나가면서, 두 자루의 마른 쌀도 얻었는데, 사람이 많아 주저했던 어부들도 표류자들이 때로 울어대니, 측은지심이 있다고 평가한 데서 최두찬의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의식도 엿볼 수 있다. 이는 대주체와 맞서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으로서, 이러한 삶에 대한 관조적인 자세는 23일 기록에도 보인다.

④ (4월 23일) 큰 비바람이 불어 종일 개지 않았다. 이날 밤, 산운 풍량이 크게 일어 船板이 모두 올랐다. 나는 피곤하여 드러누워 잠을 잤는데, 코를 고는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았다 한다. 김이진 군이 그 때문에 내 몸을 흔들기도 하고 발로 차서 깨우며 말하였다. “바람이 이와 같은데 무슨 겨를로 꿀꿀 주무십니까?”하니, 나는 “바람이 이와 같아도 어찌 잠을 자지 않는단 말인가.”하였다.

다시 종일 선판이 울리고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지만, 이 와중에도 최두찬(주체)은 천하태평으로 잠을 잤다. 어찌 잠이 오냐며 깨우는 김이진에게 최두찬은, 생사가 이미 정해진 것인데, 굳이 걱정한다고 될 일이나며 바람이 이와 같아도 잠이 오면 잘 수밖에 없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대주체의 횡포라면, 거기에 대한 거부는 불안에 떨며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 흐르는 대로 운명을 맡긴다는 태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풍랑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대변되는 대주체가 도적 때로 대체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⑤ (4월 25일)...어부들이 다시 편지를 보내왔다. “이곳에는 강도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찢어 죽이니, 목숨을 부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터이다.” 계속해서 다른 편지가 왔다. “너희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너희의 배는 구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배 안에 貨物이 있다면 두 척의 어선에 가져와서 한 곳에 모아두어라.”...(중략)...후하게 대접하는 모양과 구제를 받아들이는 뜻이 蘆歌丈人과 함께 천고에 아름다움을 찍할 만하였다. 그러나 다만 처음 배에서 내릴 때 많은 사람 이 배 안에 가두고서 강도의 말투로 종종 위협하였고, 육지에 내렸을 때에는 약간의 집기(什器)들을 창고에 보관해두었던 것을 推尋하는 사람은 칼과 검으로 찌르려고까지 하였다. 공물이나 개인의 물건과 상관없이 단번에 모조리 빼었으니 진실로 도둑들 중에 호탕한 사람이라 이를 만하였다....(중략)...얼마 안 되는 집기들에 대해 뭐 생각할 것이 있겠는가. 의로움으로 시작해 이로움으로 마친 것이 한스러우니, 어찌 의로운 장부에게 흠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옛사람 말에 “공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덕을 베풀었다면 공자는 그 일을 잊을 것이요 다른 사람이 공자에게 덕을 베풀 것이 있다면 공자는 그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 했으니, 어부들의 은덕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위 기록은 최두찬이 그 전날(24일) 중국 국경과 가까워진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일행 중 두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을 경험한 바로 직후인 25일의 기록이다. 이날은 지나가는 어선을 만나 식량을 얻어 굶주림은 면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강도로 돌변하여 또 다른 형태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경험한 날이었다. 公物, 私物 상관없이 모두 빼앗긴 상황이었지만, 최두찬은 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도둑들 중 호탕한 사람이라 하고(밑줄), 목숨을 살려준 것에 감사할 뿐이라고만 적은 것을 보면,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준 음식으로 살게 된 것이니 감사한 마음을 갖는 등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들의 도움으로 4월 26일 육지(영파부 정해현 소속 보타산 관음사)에 도착하게 되고 불안정했던 감성은 이제 안정감, 안도감

으로 변함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자 그제야 주위의 경치가 눈에 들어 오고, 낯선 공간을 객관적으로 둘러볼 여유도 생겼다. 진실로 동남쪽의 명승지라 할 만하다며, 경내 주변과 곳곳을 묘사하는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3. ‘열락(悅樂)-슬픔(悲)’의 혼재 속 자기 인식: 동일화의 미학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최두찬의 시선에는 이제 새로운 풍경들이 포착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강남의 풍경으로, 『승사록』의 절반 이상이 강남 이야기인 데다가 심지어 귀국 후 ‘강남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여생을 보냈을 만큼, 강남은 최두찬에게 매우 각별한 공간이었다. 강남이 그에게 특별한 장소로서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남 문사들과의交遊 때문이었다.

최두찬은 표류인 소환 조사를 받느라, 5월 2일 정해현 관사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쓴 『승사록』이 소문이 나서, 매일 같이 강남 문사들의 방문을 받게 된다. 『승사록』의 소문을 듣고 베껴가며 읽는 열풍은 물론, 심지어 부녀자들까지도 열독하고¹⁹⁾ 나이가 70넘은 중국 문사가 몸소 방문 하기도 하는²⁰⁾ 등, 그의 문학적 재능은 당시 강남 인사들에게 핫이슈였고, 그의 서호에 관한 시는 하나의 서호 담론을 형성할 만큼 큰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다.

여기서 최두찬을 둘러싼 대주체는 곧 다름 아닌 강남 문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강남 체험을 하는 동안 최두찬의 감성은 이러한 대주체를 향해

19) 6월 5일의 기록에, 어떤 여성 대여섯이 『승사록』을 보고서, 들은 읽고 빛은 담배를 빨면서 둘러앉아 들었는데 글 읽는 소리가 들을 만하여 이에 감동을 받은 최두찬이 절구 한 수를 짓기도 했다고 나온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江海散人不讀書 南來贏得盛名虛 吳姬傳誦乘槎錄 客宿何宵犯斗墟.’

20) 6월 3일의 기록 참조

매우 긍정적이며, 때론 이와 하나가 되기도 하는, 동일화의 담론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문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서로가 매우 우호적이며 긍정적이었기에 상호 양방향에서 정서적 동일화를 이룰 수 있었다.

1) 知友와의 만남과 상호 인식

강남 문사들은 최두찬을 타자/이방인으로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한 거부감, 거리감 등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詩翁, 평범하지 않은 客, 雙壁 등으로 찬양, 흠모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필담과 더불어 대체로 贈詩에서 잘 드러난다.

① 강남 문사들의 贈詩

- (5월 4일, 악병이 준 시): 만 리 길 煙波 속에 고향과 이별하고/관산 넘기 어려움을 그 누가 슬퍼하리/알겠노라. 그대는 평범한 객이 아니라/ 반드시 고인으로 주장함이 있는 줄을.²¹⁾

- (5월 13일 하몽두가 준 시): ①인사와 언어를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그대 온 곳곳마다 시명이 알려졌네. / ㉠(여선 진복희가 준 시) 최고로 다정한 것은 푸르른 하늘이니/시인을 불러 보내 월동에 달게 했네./해객이 뗏목 타니 노는 것도 장엄하고/강량은 빛이 있어 말이 잘 통하였네./객지에서 상봉함이 겨우 며칠이었는데/어찌하여 행색을 또다시 서두르나/ ㉡(주훈이 준 시) [1] 홀연 객이 동국에서 이르렀다 알리기에/교관(郊館)에 내가 가서 시인을 방문했네./ [3] 해외에서 재주 있자 마침내 못 숨기어 /한꺼번에 쌍벽(雙壁)이 잠겼다 나왔네./ ㉢(영해용이 준 시) [1] 뚝단배에 바람 불러 해동에서 보내져서/택국 와서 유람하니 땅이 두루 봄이구나./객은 본래 무심하나 하늘에는 뜻이 있어/일부러 풍랑으로 시인을 보냈으리/ [2] 만 리 길에 만났다가 천애로 헤어지니/잠시 동안 머문 그 후로 곧 집이 되었네./ 기는 배에 일찍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건/소중화를

21) ‘萬里煙波別故鄉 關山難越孰悲傷 知君不是凡閑客 定有高人作主張.’ 이에 대해 최두찬도 화답시를 지으며, 함께 옛것 논함의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그대와 두루 논하고 싶어서네.²²⁾

②최두찬의 贈詩

-(5월 7일) ‘구양수는 마흔 살에 늙은이라 말했는데/먼 땅에서 망년지교 맺었으니 생각을 거듭했네./필담으로 꼼꼼하게 속마음 의논하니/산 밖의 저녁 빛이 붉는 줄 몰랐도다.’²³⁾

먼저 ①에서는 강남 문사들이 최두찬을 평범한 표류객이 아니라 文才가 매우 뛰어난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 5월 4일, 악병이라는 인물이 준 시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인물로 최두찬을 바라보고 있고, 13일 기록에서도 하몽두, 진복희, 주훈의 贈詩에서 詩名이 알려졌다거나(㉠), 풍랑에 온 시인과 말이 잘 통했다거나(㉡) 최두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한 시인이라 여겨 만나니 재주를 숨길 수 없어 쌍벽이 잠겼다 나왔다고 한 것(㉢), 풍랑으로 시인을 보냈기에, 그와 함께 소중화에 대해 두루 논해 보고 싶다는 표현(㉣)에서 주체(최두찬)를 향한 대주체의 지향성은 물론, 이들 사이에 긍정적인 감정 기류가 형성된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류는 사실 그 전날(5월 3일)부터 있었다. 이날은 최두찬이 강남 문사 주패란을 만나 필담을 나누었는데, 비록 주패란은 최두찬과 같은 일행이었던 김이진과는 갈등이 있었지만 최두찬과는 상호 소통,

22) 해당 부분 시 구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人事語言雖未悉 君來處處有詩名/㉡最多情是碧翁翁 吹送詩人到越東 海客乘槎游亦壯 江郎有筆話能通...(中略)...萍水相逢纔幾日 如何行色又恩恩)//㉢[1]忽報客從東國至 我來郊館訪詩人/ [3]海外有才終莫秘 一時雙壁出沈淪/[5]衣冠想像漢官儀 倚馬才高我幸知 五月江城家萬里 狼毫硯紙寫新詩)//㉣[1]一帆風送海東濱 澤國來游遍地春 客本無心天有意 故教風浪送詩人/[2]相逢萬里各天涯 小住由來便作家 寄語歸帆莫早返 與君論遍小中華.

23) 시는 다음과 같다. ‘滌亭四十始稱翁 絕域忘年意幾重 筆話細論心內事 不知山外夕暉紅.’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뗏목 타고 강남에 왔으니 다 같이 현 왕조(청)가 번성하기를 축하하자는 뜻을 시로 짓고 최두찬은 화답시로 주패란을 높이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서로 교감을 나누기도 했던 것이다. 비록 5일, 최두찬이 <술회> 15운을 지어, 잠시 고향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만 대체로 매일같이 방문하는 문사들로 마음이 한기할 여유가 없었다. 이날은 강남의 화려한 가옥 구경은 물론, 여러 선비들과 즐거운 만남을 갖기도 했는데, 이러한 즐거운 감성으로, 최두찬은 절구 한 수²⁴⁾를 짓기도 했다.

知友를 만난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열락의 감성은 ②에서도 잘 보인다. 이러한 감성은 강남에 머무는 동안, 여러 문사들이 방문했을 때 지은 그의 시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9일, 임랑기, 임위장, 정광륜 등의 문사가 찾아와서 『승사록』을 보고서, 시의가 걸출하니 자신들 같이 낮은 학식의 하찮은 사람으로는 능히 이해할 수 없기에 다음 날 다시 와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한 기록을 보면, 최두찬은 조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문재를 강남에서 떨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즐거운 감정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최두찬(자: 應七, 호: 江海散人)은 1779년 6월 23일에 자인현 상대리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영특하고 효성이 지극했다고 알려져 있어²⁵⁾ 학식이 풍부한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出仕는 않았기에 중앙 권력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지방 문인이었다. 그렇기에 조선에서 그는 크게 이름을 떨친 적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예기치 않은 표류로 강남에 표착하면서부터 대국에서 文才를 인정받게 되니, 강남은 그에게 매우 큰 의미로 새겨

24)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金谷繁華一夢中 江南難得富家翁 看君第宅驚心目 七尺珊瑚定幾叢.’ 이는 상화의 부에 대한 칭찬을 읊은 시구로, 이에 대해 상화는 최두찬을 ‘시옹’이라고 일컬으며 본인의 부에 대해 謙辭의 응수 시를 짓기도 했다.

25) 1791년 모친의 숨이 끊어지자 斷指 소생시키려 하였으나, 끝내 돌아가시자 袒括하고 상을 치러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孝童이라 일컬었다. 1811년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졌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대주체-주체 간의 동일화 담론은, 대주체가 오히려 최두찬의 입장이 되어 시를 읊조린 경우²⁶⁾에서도 발견된다. 앞선 경우가 대주체(강남문사)≠주체(최두찬)의 양상이라면 이 경우는 작품 속에서 대주체=주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더욱 가까운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주체인 최두찬을 객 혹은 他者로서 인식하고 그의 文才를 흠모하는 경우나 主와 客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의 경험을 한 시적 자어로 통합되어 나타나거나 간에 모두 정서적 거리가 합일되면서 동일화 담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로 묶인다.

2) 슬픔(悲哀)의 감성과 자기 인식

한편, 『승사록』의 강남 체험 기간에는,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현재 상황을 서정적으로 읊은 일련의 시도 있다. 주로 이별 상황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은 것으로, 당시 열락에 가득 찬 앞선 경우와는 또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① 이번 이별이 몹시 슬픈 것은/하늘이 조선과 중국으로 한정했기에/땅이 애각(涯角)으로 나뉘어/한번 이별한 뒤에는/형체와 그림자가 의지할 곳 없기 때문이네.²⁷⁾

② 표류하던 三韓의 나그네/5월 서남쪽 먼 길을 갔네/의관은 사람들 모두 괴이 타는데/얼굴은 귀신 다시 살아난 것 같았네./도리어 바닷속 일 떠올려 보니/오히려 꿈속 혼도 잠짝 놀랄 만했네./바다에 갑작스레 비바람이 부니/배의 갑판

26)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5월 13일 주훈의 시 중 7~8수): [7]異地于今擬識韓 滿江霖雨不勝寒 乘槎有路都成錄 九折黃河眼界寬.’; [8]‘記日風帆取次行 袖籠新稿出江城 贈言此去休悵悵 萬里皇輿似砥平.’.

27)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此別甚悵 天限華東 地分涯角 一別後 形影無憑.’

밤낮으로 소리가 났네./바다가 넓으니 봉새 처음 날아갔고/돛대가 높으니 까마귀가 더러 기웃대네./사공들도 오히려 창백해졌고/노인과 아이들 모두 失聲痛
 뗏하니/비유컨대 불난 숲 속의 새가/둥지가 위태롭자 함께 울과 같았네/...(중
 략)...한 달간 일 꿈꿈이 떠올려보니/황홀하여 친검을 겪은 듯하네./생명은 다만
그저 빈 껍질이고/마음과 정신은 이미 정기 잃었네./봉두난발에 발에는 버선
없었으니/늪지 않아도 이미 쇠한 모습이었네./적삼에선 땀 냄새가 풍겨 나왔
고/두 눈은 파리 떼가 웅웅거렸네./때로는 모습이 그림자에 위로하기를/그대
는 옛날 모습 아니라’ 하었네./오나라 땅 사람들 아직 시구를 찾으니/乘梯
한 것이 부질없이 이름만 얻었네.²⁸⁾

먼저 ①은 5월 14일, 최두찬 일행이 출항하기 전 정해현 선비들과 전별
 연하는 자리에서 지은 시이다. 이날은, 오신포가 <飜風圖> 한 축을 바치고
 최두찬에게 창수함을 요구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고 배도 곧 출항을 기
 다리고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지만, 詩想을 떠올려 곧바로 써 내려갔다
 는 기록²⁹⁾으로 보아, 급박한 상황에서도 문학을 향한 그의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표류자였기에 한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던 최두찬은, 이별의
 정한을 가감 없이 표출하며, 자신의 처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①). 이
 날 모인 선비들에게,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 높은 지위에 이르러 조선 사신
 이 왔을 때, 자신을 찾으면 위로가 될 것이라 하니, 모인 선비들이 모두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는 기록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곧 당시 문사들

28)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飄飄三韓客 五月西南征 巾服人皆怪 形容鬼還生 却憶洋
 中事 猶得夢魂驚 滄溟忽風雨 船板日夜鳴 海關鵬初徙 檣高鳥或傾 篙師猶無色
 老弱盡失聲 譬如焚林鳥 巢危共嚶嚶...(中略)...拊念三句事 恍惚千劫經 性命只
 空殼 心神已喪精 頭蓬足不襪 未老衰已形 單衫足汗臭 兩眼蠅營營 有時形弔影
 君非舊典刑 吳人猶索句 乘槎浪得名.’

29) 5월 14일, 수록된 시는 다음과 같다. ‘我本三韓老措大 篝燈早讀循吏篇/河南吳公
 眞第一 朱邑樊遂同此廟/今年漂到定海縣 秧針出水綠芊芊/男髻欣欣女顧悅 甘
 雨時降公私田...(後略)...’ 독서광이었던 오신포와는 사주도 보는 등 친밀감을 형성
 했는데, 이는 수창시 외에 필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모두 최두찬과 마찬가지로 재주는 있으나 아직 큰 벼슬에 오르지 못한 인물들이었기에, 자신들의 현실적 처지를 깨달은 데서 오는 서글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두찬의 이별시는 또 여러 문사들의 공감을 이끌어 그 자리에서 이별에 관한 시를 읊조리게 하기도 했다.

또, 최두찬은 26일, <술회> 16운을 지었는데, 이 시(②)는, 토박이들이 종이와 붓을 보내고, 시구를 구했지만 죽을 뻔한 뒤라 정신이 맑지 못해 사양해도 오히려 억지로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하는 수 없이 지었다는 기록이 같이 전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날은 그다지 즐겁거나 행복했던 감정 상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는 그간 최두찬의 감성 변화가 압축되어 있다. 처음 표류 상황을 맞아 놀라움, 불안정한 상태였다가 보타산/절강성에 이르자 안정감을 찾았지만, 큰 고생 뒤라 이미 몇십 년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자신의 모습이 웬지 서글픔과 애잔함으로 가득하다. 더 이상 예전의 자기가 아닌 듯한, 괴리감마저 느끼려는 찰나, 계속해서 강남 문사들은 아직도 자신의 시구를 찾으니 표류한 것이 부질없이 이름만 얻었다며 자조적인 듯 자부심인 듯 애매모호한 결구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강남의 여러 문사들과 필담, 수창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던 감성은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몸과 마음이 힘들면 만사가 귀찮은 법이다. 이날 최두찬은 모든 것을 다 잊고, 혼자 쉬고픈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였다. 이별시이든 술회시이든, 아쉽고 슬픈 감성, 다소 피곤하고 지친 기색이 엿보이더라도 대체로, 강남 체험기 동안 최두찬의 감성은, 대주체와 공감, 소통, 동일화 담론을 형성하며 매우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당시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던 ‘강남’은 최두찬에게 있어, 열락의 공간이자 자기의 文才를 인정받음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인식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 음식 문화, 민간요법, 수로 문제 등 재미난 기록들을 관통하는 감성은 놀라움, 호기심과 더불어 즐거움 그 자체이다. 마치, 표류자라기보다는 여행자

로서의 모습이다.

사실 장건에 스스로를 대입하여 제목마저 『승사록』이라 한 데서 보듯, 최두찬은 단순히 장건처럼 서역에서 19년간 떠돌았던 상황 자체에만 주목한 것은 아닌 듯하다.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에 자신을 대입함으로써, 강남 지식인들과 쌓은 교유 경험을 장건의 업적만큼 높이 보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무의식중에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비록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가 조선을 위해서 무언가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 인물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싶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최두찬은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강남 선비들과 학적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그의 文才는 그들로 하여금 지적 호기심을 일으키면서, 한 문사에 대한 호기심이 조선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³⁰⁾

이러한 대주체-주체 간의 동일화 담론은, 오랫동안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서 최두찬의 가슴에 고스란히 새겨지게 된다. 附錄에 실린 글을 보면, 자신이 歸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江南 士人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절히 써 내려갔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서호 담론과 주체-대주체 간의 동류 인식

한편, 최두찬은 24일, 서문 밖 西湖에 가보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감회를 詩로 표현하게 된다.³¹⁾ 이후 많은 강남 문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앞다투어 그의 시에 차운하는 문화 열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 간의 정서적 합일 및 동일화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30) 5월 4일, 최두찬의 사주를 봐 주던 오신포가 조선의 산천/풍속/과거 시험 문체 등을 묻는 데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31)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①藍輿晚到浙江城 西望長湖眼忽明 誰把烟霞都管領 却教荷桂未忘情; ②越中山水盡精神 最愛西湖景物新 恰似東家賢處子 隔牆相望不相親.’

① ㉠(적포의 이별 시) 한 번 보고 지기가 되었으니/그대는 진실로 툭 터진 분이
 었노라./호해의 뜻 품은 것에 인연하여서/여기 와서 금강의 봄 알게 되었네.//;
 ㉡(최두찬 화답시)표류한 일이 점차 위안되는 건/오나라 땅에 시인들이 있어
 서이네./달을 보고 멀리서 생각할 때는/중국과 조선은 같은 봄이리.//; ㉢(적
 포 시)언어는 진실로 전달이 어려우나/애오라지 창화하는 사람 되었네./펼담이
 뛰어난 격조 이루었으니/이미 충분한 봄을 받게 되었네.//; ㉣(최두찬 시)그
 대에게 묻노니 시에서/나 보길 어떤 이라 여기고 있는가./원하는 것은, 백아의
 거문고 잡고/함께 회해의 봄날에 함께 유람하는 것이리라.//; ㉤(적포의 화답
 시)高雅한 해학은 원래 뜻 없었으나/애오라지 적막한 이와 수작하였네./뗏목
 타고 돌아간 뒤라 하여도/武林의 봄날을 기억할 수 있으리.//³²⁾

② (최두찬의 시) 흰머리 깡마른 얼굴의 노인/은근히 방문하니 고인의 품모일
 세./㉠靈犀가 중국과 조선을 막지 않아서/天目山 앞에 석양이 붉도록 담소
 했네.//; (정영의 시)[1]은 세상 끝없어도 하늘땅을 함께하며/객지에서 사귀은
 무슨 일로 동서로 나누나./㉡뗏목 타고 날듯 건너 풍운처럼 모여서는/붓 놀려
 담소하니 의기가 통하였네./옛 절에서 인연 따라 만남을 이루었고/귀로에 잘
 갈 거니 걱정 안 해도 되네....(후략)...//; [2]도연명은 국화 따다 남산을 보았으
 니/참뜻은 언었어도 言辭는 잊었다.//그대는 이제 잠시 옛 절 빌려 머무는데/
 서호를 바라보니 정신이 달려가네./바라볼 수는 있어도 가볼 수는 없으니/느긋
 하게 남은 생각 있음을 느끼겠네....(중략).../㉢나는 이제 그대의 유람을 함께할
 수 없으니/애오라지 붓 적서서 이 시 지어주노라.//³³⁾

32) 해당 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一面成知己 君眞磊落人 綠懷湖海志; ㉡漂
 流精自慰 吳下有詩人 見月邊相憶 華東同一春; ㉢言語誠難達 聊爲唱和人 筆談
 成絕調 已荷十分春; ㉣問君詩上意 看我作何人 願把伯牙琴 共游淮海春; ㉤雅謔
 原無意 聊酬寂寞人 槎歸去後 可憶武林春.’

33) 해당 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白首蒼顏一老翁 慇懃相訪古人風 ㉠靈犀不以
 華東阻 天目山前夕照紅; [1]海宇無垠覆載同 萍交底事判西東/㉢乘槎飛渡風雲
 會走筆傾談意氣通 古寺隨緣成邂逅 歸途利涉莫憂仲...(後略)...; [2]陶公採菊見
 南山 領取眞意忘言辭 君今暫借古寺棲 望見西湖神爲馳 正惟可望不可即 彌覺
 悠然有餘思...(中略).../㉣我今不能伴游展 聊爲泚筆贈此詩.’

③ (5월 28일 최두찬의 시) ②서호가 좋은 경치 아니라만/동국 땅에는 나의 집이 있다./...(중략)...뗏목을 탄 것은 한나라 사신과 같지만/사물을 두루 아는 건 장화와는 다르네./다행히 새로 알게 된 즐거움이 있으니/스스로 늙은이의 탄식은 없게 되었네./(5월 29일 전당현 主簿인 왕환기의 시)③이 땅의 산천에는 모두 신령이 있어/ 서호의 풍물이 더욱더 새롭다오./스스로 부끄럽네! 소동파나 백거이만 못하여/뱃놀이 삼 년에도 친근함이 적으니./(6월 1일 진운교의 시)④[1]선생은 학식이 높으니 어찌 가난한 유자이라/하늘이 준 기이한 유람에 분수 밖에 살졌도다./보배로운 산에 맨손으로 들어왔다 말하지 마오./『승사록』의 좋은 말이 구슬과 똑같으니; [2]이제야 상객 수레, 돌아가려 하노니/ 다시 만날 생각하자 마음이 딱딱하네./내 명성 하찮을 때 그대 이미 돌아가니/하늘이 어느 해에 만나게 해줄지 알 수 없네.³⁴⁾

이들 시에는, 다시 열락의 감성, 동일화 담론, 대주체의 주체를 향한 숭앙, 찬양, 흠모 등의 정서를 그대로 볼 수 있다. ①은 최두찬이 적포와 수창한 시로, 한 번 보고 서로知己가 될 만큼 마음이 통했다 하고(㉠), 최두찬 역시, 표류하면서 적적했는데 마음이 통해 중국-조선 간 물리적 거리는 있을지라도 같은 봄일 것이라며 정서적 거리의 합일화를 보여준다. 필담이 뛰어나 즐겁다는 것(㉡)과 이별해야 하기에 슬프지만 백아와 종자기처럼 함께 했던 추억은 고이 간직하겠다는 뜻을 표현하면서(㉢) 서로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

②는 절강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전당 시는 노인 정영이 찾아와 함께 수창한 시로, 청-조선 간의 물리적 거리가 詩를 통해 하나로 무마됨을 볼 수 있고(㉣), 서로 의기가 통해 함께 하고프나 상황상 머무는 자와

34)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5월 28일 최두찬의 시) ②西湖非勝概 東國是吾家...(中略)...乘槎同漢使 博物異張華 幸有新知樂 自無大耋嗟; (5월 29일 왕환기의 시)③ 此地山川盡有神 西湖風物更加新 自慚未得齊蘇白 三載游船少與親; (6월 1일 진운교의 시)④[1]先生學富豈貧儒 天縱奇游分外腴 莫道寶山空手入 乘槎集好語如珠; [2]如今上客駕將還 想到重逢亦黯然 我未成名君已返 不知天使會何年.’

떠나는 자 간의 거리로 함께 유람할 수 없으니 대신 시를 지어준다는 데서 대주체의 애뜻한 마음도 자세히 볼 수 있다(㉔㉕). ㉓은 수재 양균의 시에 화답한 시(㉔)로, 서호가 아무리 좋아도 조선에 자신의 집이 있다 한 데서 주체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또 장건과 자신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데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동시에 사물을 두루 아는 것은 또 장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서는 현실적 처지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남에 와서 겪은 새로운 경험으로 늙은이의 탄식이 없다는 데서, 대체로 자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일에는 서호 열풍이라고 할 만큼, 많은 문사들이 서호 시 운자를 갖고 서로 번갈아 시를 지으며, 서호를 넘어 새로운 문학적, 문화적 담론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중 ㉓-㉔은 왕환기가 지어준 시로, 이 시에서는 서호의 아름다움을 소동파나 백거이처럼 詩才가 뛰어나지 못해 다 표현하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고 있다. 그만큼 서호는 중국 문사에게도 주체 최두찬에게도 아름다운 곳이자 감히 표현하기 어려운 곳으로서 의미가 새겨진다.³⁵⁾ 이러한 자기 인식 및 동일 처지에 놓인 문사들끼리의 감정적 교류는 ㉓-㉔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최두찬과 동갑내기 진운교가 지은 시로, 비록 관직에 오르진 못했어도 학식이 높으니 가난한 유자가 아니라면서 『승사록』의 대단한 가치와 함께 본인 스스로도 하찮을 때 최두찬이 돌아가게 되니 안타깝다고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처지에 대한 동류의식을 보여준다.³⁶⁾

35) 이날은 또 최두찬-석문 간의 科擧 응시 때의 답소가 기록되어 있다. 최두찬이 경오년(1810)에, 석문이 무진년(1808)에 급제했는데, 이미 60세였던 석문이, 일찍 과거에 급제했다며 최두찬을 칭찬하는 데서, 비록 서로 합격은 했지만 큰 자리는 차지 못한 상황이라 동류의식, 정서적 교감을 보여준다.

36) 이 외에도 많은 문사들이, 최두찬이 서호를 유람하지 못한 것을 위로하는 시를 지어 주기도 하고, 곧 가족상봉 할 테니 염려 말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또 6월 5일에는 여교유 자백의 시에서 느낀 바가 있어 부모를 생각하며 慈柏說을 지은 일도 있었는데, 이 기록은, 곧 대주체-주체 간에 서호 및 각자의 현실적 처지 외에도孝를

이처럼 주체는 서호 담론 속 열락의 감성으로 충만해 있는데, 사실 강남은, 그 자체로 조선 문인들에게 하나의 동경 대상이었다. 조선 초에는 한동안 奉命使行으로서 이곳 기행이 가능했지만, 이후로는 공식적인 사행이 북경 인근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었기에, 강남 자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랬기에 강남에 대한 동경은 江南熱과 西湖圖로 表出되기도 했을 만큼³⁷⁾, 현실적으로 강남은 표류 외에는 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랬던 강남을 밟고, 또 필담과 唱酬를 통해 동아시아적 지식 정보를 교류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눈 이 사건은 최두찬의 인생에서 실로 대단한 의미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남 체험 속 열락의 감성도, 6월 9일 마침내 절강을 나와 신안현(新安縣: 주자의 고향)을 지나며, 본국 귀환이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지면서부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4. ‘불안(不安)’ 속 향수(鄉愁)와 역사 인식: 반동일화의 미학

귀국, 송환기는 시간적으로 1818년 6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이때 최두찬은 자신의 文才를 인정해 주는 知友도 부재하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착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가는 길목마다 야박한 접대로 굶주림은 물론, 행로의 험난함도 더해지면서 자신을 둘러싼 대주체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형성하며 불편한 감정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반동일화).

중심으로 동류의식을 형성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37)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281~306쪽 참조.

1) 知友의 부재와 鄉愁의 感性

최두찬은 6월 11일 수수현에 도착하자 표류선을 구경하러 온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자 이에 느낌이 있어 시 1수³⁸⁾를 짓고, 13일 강소성에 도착해서는 절강과 흡사한 경치 속 잠시 행복감에 젖기도 한다. 성 밖에 있는 寒山寺를 방문하고는 <感古>라는 시 한 수를 지어 서정적인 풍경을 읊기도 했다.³⁹⁾ 그러나 여러 현을 거치면서, 또 조선에 가까워지면서 이전의 행복했던 감성과는 달리, 유독 향수에 젖으며 애상감에 사로잡힌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한다.

① 저 강가에 배를 띄워서/밤낮으로 다니기를 쉬지 않으나./뗏목 타 직녀성을 찾아갔었고/학을 타고 양주를 지나갔도다./희미한 달 서늘함이 물과 같았고/물 가 꽃은 싸늘함이 가을이었네./서성대는 만 리 밖의 나그네가/그 언제나 조선 땅에 도착할 건가.//⁴⁰⁾

② 밤이 되자 바람이 더 서늘하고/가을이 가까우니 달 더욱 밝네./맑은 시름 도리어 금할 수 없는 것은/만 리 밖에 타향의 감정이도다.//⁴¹⁾

①은 6월 21일 고우주에 도착한 뒤, 저녁밥을 먹고 출발한 배 안에서 자다 일어나니, 희미한 달, 일제히 흘러나오는 뱃노래, 황량하게 펼쳐진 갈대꽃과 갈대잎의 풍경 속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와 마음이 좋지 않아 스스로 위로하고자 지은 시이다. 밤낮으로 이동한 데 대한 피곤한 기

38)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沿河十里盡樓臺 珠箔紗牕次第開 兩兩佳人嬌笑語 客從何國遇風來.’

39)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姑蘇城外水東流 白苧歌殘伯氣收 昔日吳王宮裏月 夜深來照過江舟.’

40) ‘汎彼河邊舟 豐宵行不休 乘槎訪織女 騎鶴過揚州 殘月涼如水 汀花颯欲秋 栖栖萬里客 幾日到靑丘.’

41) ‘入夜風逾爽 近秋月更明 清愁還不禁 萬里異鄉情.’

색과 쓸쓸한 가을날, 어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만 리 밖에서 고국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그네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 이제 주체를 둘러싼 환경에 우호적이거나 즐거운 감성보다는, 쓸쓸함과 깊은 향수로 오히려 애상감에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다. ②는 22일, 마옹의 고향인 산양 현에 도착해 짧은 절구 한 수를 지어 스스로 위로한 시이다. 여기서도 다가오는 가을, 청명히 밝은 달, 만 리 밖 타향에 있는 자신의 처지 등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깊숙이 담아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향수의 감정은, 어떤 사람이 고려지 두 장을 갖고 와서 글씨를 청한 26일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타국에서 조선의 초백지(草白紙)를 보니, 감회가 없을 수 없었고, 이에 최두찬은 <高麗白紙歌>를 지어 노정유에게 주었는데, 해당 시는 아래와 같다.

③ 우리 동방 토산에는 좋은 닥[楮] 생산되니/종이 빛 매우 희어 서리, 눈과 같이 희네./紙工이 두들겨 종이를 만드니/두껍거나 얇거나 모두 다 이름있네./북으로는 중국 가고 동으로는 일본 가니/가격이 뛰어올라 천금도 싸다 하네./조선 사람 천히 여겨 아낄 줄 모르니/하루에 文房에서 천 장이나 허비하네...(중략).../올해 표류하다 절강부에 이르니/粉紙와 花箋에 상다리가 휘 것 같네./유인들은 종이 빌려 『승사록』을 베끼고/묵객들은 종이 구해 西湖章을 썼도다./시험 삼아 먹물 듬뿍 묻혀 쓰려하니/종이가 거칠고 뻗뻗하여 붓이 나가지 않네./종이 펴고 붓 던지며 한 번 길게 탄식하니/그 품질 자못 달라 한양 것 아니어서네./억지로 붓 대려도 손에 공이 없으니/염파가 趙나라 군대 생각한 까닭이었네./오늘 아침에 비로소 고국의 낮 셋게 되니/하늘가 먼 곳에서 떠도는 서생 같네.//42)

42) ‘吾東土産産美楮 皮膚潔白霜雪明 紙工用之搗爲紙 厚者薄者皆有名 北出上國東日本 厥價翔踊千金輕 東人賤之不解惜 一日文房費千片...(中略)...今年漂到浙江府 粉紙花箋顏匡牀 遊人借贍乘槎錄 墨客乞書西湖章 試將墨瀝一揮灑 紙性粗硬筆不行 臨紙却筆一長嘆 厥品殊非漢陽城 強欲揮毫手無功 所以廉公思趙兵 今朝始拭故國面 天涯淪落同書生.’

위 시는, 표면상 한국 종이(楮紙)의 우수함과 상대적으로 중국 종이(和紙)가 그렇지 못한 사정을 읊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향수의 정서가 깊숙이 배어 있다. 타지에 있으면, 고향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고향과 관련된 사물, 사건, 문구 하나만 보아도 왠지 반가운 법이다. 최두찬에게 있어서 초백지 역시 그러했다. 옛날에는 그 종이(楮紙)가 좋은 줄 모르고 함부로 낭비했던만, 먼 곳에 나와 보니, 한지의 우수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데다 그렇잖아도 고향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조선의 초백지를 보니, 고향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상황으로 초의 장수가 된 조나라 염파 장군의 고사를 활용해, 늘 조의 군대를 지휘하고있던 염파처럼, 비록 중국 문사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더라도, 늘 마음 한구석 떨쳐낼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국의 종이를 보니, 더욱 간절하다는 비유가 매우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에 더해 27일 이후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28일 아침/저녁, 29일 아침을 연속으로 거르게 되자, 성에 들어가 현주를 보려 했는데 처음에는 하찮게 대우하다가 최두찬의 필담을 보고, 현주가 위로와 사과를 지극히 하면서 아침밥도 주고 유숙하게까지 한 사건도 있었다. 7월 3일 몽음현에 있을 때도, 저녁밥을 짓지 못해 좁쌀죽을 먹었는데 너덕지 못하여 먹지 못한 사람이 절반 남짓 되었으며, 그 다음날 아침(4일)에도 죽과 떡이 사람들에게 전부 돌아가지 못했으며,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위관이 준비한 밥을 겨우 먹게 되기도 했다. 신태현에 도착한 5일에도 아침을 거르고 오후 늦게야 밥을 먹어 모두 고달파 했으며, 6일도 늦게야 밥을 먹긴 했지만, 밥이 모자라 다 먹지는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⁴³⁾

43) 물론, 최두찬은 강남과는 달리, 동네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표류 당시의 일에 비하면 현재의 굶주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7월 6일), 대체로 여러 날 굶고, 대우가 약해 매우 힘든 시기를 겪은 데 대해 불편한 감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우체와 동일화의 정서나 합일화된 정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비단 배고픔만도 아니었다. 최두찬 일행은 귀국, 송환길에 오르면서 낮은 환경 속 질병과도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 30일의 기록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날은 최두찬이, 관아에서 여러 날을 머물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냉골에 있었기에 설사와 학질 등의 증세가 번갈아 나타나 앓는 소리가 들리니 매우 우울하다며 예부에게 글을 지어 올렸는데,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마음과 겨울이 오기 전, 빨리 송환길을 서둘러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매우 절절히 담겨있다. 이를 통해 최두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귀환에 대한 갈망이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모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체의 불안한 감성과 더불어, 송환길이 늦추어져서 추위에 더욱 생사를 다투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감성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주체와 어떤 정서적 거리의 합일보다는, 어긋난 감성, 불연속적인 세계관으로 애원, 부탁, 청유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섞인 상태임도 짐작할 수 있다. 대주체와의 이런 어긋난 감성은, 8월 2일 어떤 사람이 “葛袍今日又西風”으로 제목을 삼아 시를 칭하자 지은 5언시 12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④ 갈대 재가 옥관에서 날더니/ 한밤중에 서풍이 불어대누나./ 바지를 벗은 것은 서리 전의 새이고/ 베 짜기를 재촉하는 건 베틀 밑 귀뚜라미이네./ 여름옷, 겨울옷은 제철 있으니/ 굵고 가는 베옷은 몸에 합당치 않네./ 옷에는 주나라 여인의 길썸이 다 되었고/ 신발은 위나라 여자의 공이 차가웠네./ 종아리를 당겨서 갓 터진 옷 꿰맸고/ 팔꿈치를 기우니 반은 구멍 뚫렸네./ 처량한 한탄을 시로 지으니/ 하늘은 압록강의 동쪽에 높네.⁴⁴⁾

위의 시에서는, 현재 제철에 맞지 않는 옷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변변찮

44)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霞灰飛玉管 中夜起西風 袴脫霜前鳥 織催機下蟲 葛裘斯有節 絺綌不宜躬 服盡周姬績 履寒魏女工 挽脛纒補綻 捉肘半穿空 賦得淒其歎 天高鴨水東.’

은 의복으로 껌매 입은 서글픈 상황, 그나마 수선하겠답시고 팔꿈치를 기웠다가 반은 구멍이 뚫려 버려 오히려 난감해져 버린 상황, 이 모든 것이 몰고 온 처량한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소장과 간곡한 부탁으로, 8월 8일에는 소주(蘇州)에 표류하였던 김광현이 먼저 고국으로 떠나게 된다. 최두찬은, 이 날 “이주 먼 異域에서 전송하게 되니 마음이 짝하여 문밖으로 나와 평평 우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 스스로도 가고픈 마음 등으로 매우 서글픈 감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일 최두찬이 감기로 오래 고통을 받았고, 먼저 떠난 표류인 12명에게는 없던 하사품이 최두찬에게는 내려졌는데, 글을 읽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현주가 사비로 옷을 하사했다는 것으로 보아, 文을 이는 지식인을 숭상하던 당시의 풍습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향수의 감성과 서글픔은 쉽사리 가지지 않아 14일 황성에 도착해, 고향 생각에 젖은 시를 짓기도 한다. 이날 기록에 따르면, 황성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주하여 좋은 것이 없었으며, 더욱이 몹시도 시를 쓸 거리가 없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밤에 달빛이 비단과 같아 고국을 떠나온 감회가 있기에 절구 한 수⁴⁵⁾를 짓는다는 데서 문학적 감수성이 가득한 주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8월 28일은 개평현을 지났는데, 市井이 준비해 강남의 여러 군과 같았다고 한 데서 즐거웠던 강남을 계속해서 기억에서 소환하고, 강남이 기준이 되어 타 지역과 비교하는 양상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남 때처럼 문사들과 즐거운 필담, 수창은 더 이상 크게 보이진 않으며, 여전히 대주체와의 불편한 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뿐이다. 대주체와의 어긋난 감성은 비단 배고픔, 질병뿐만이 아니라 행차의 불편함에서도 드러난다. 진흙탕이

45) ‘吳山楚水路悠悠 艱到皇城更淹留 明月不知行客恨 却從愁裏報中秋.’ 이러한 향수의 정서는 26일 시에서도 발견된다(‘秋風獵獵動帷裳 萬里東歸道路長 漠北青山靺鞨國 天邊流水女真鄉.’).

많아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5일), 광령현의 胡家窩에 도착했는데, 물이 불어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으며(6일), 날마다 즐기치게 비가 내려 진흙탕이 많아, 行役이 이삼십 리에 불과해 매우 근심스러웠다는 기록(9일), 마침내 수레가 출발하였지만 작은 시내를 건너다 수레가 물에 빠져 몸에 지닌 보따리가 모두 젖어 한탄스러웠다는 기록(12일), 종에게 옷을 말리게 했으나 잘 안 말랐다는 기록(13일) 등을 보면 귀국, 송환길에서 최두찬의 감성은 근심, 걱정, 불안, 향수로 인한 슬픔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황제의 행차길과 겹치는 바람에, 어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출발하느라 일정마저 늦어지기도 했다. 바쁘다가 무료해져서 지은 시에서 이러한 대주체와의 어긋난 감성,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난다.

⑤ [1]만 리의 관하에서 도로가 기다란데/ 하늘가에 좋은 때가 또 중앙절이다./중원에서 고풍 겪어 머리에서 흰 털 나고/ 북녘땅의 가을빛에 국화가 누레지네./즐거움도 더 슬퍼지니 괴리는 울림 있고/ 취하여 고민 털기 위해 잔가득 술 따랐네./이듬해에는 龍山 모임을 가지려 하니/ 어찌 늙을수록 더한 광기 방해되랴.// [2]억지로 주점 향해 술 구해 마시노니/ 이 몸이 취한 곳이 중앙절 때이로세./근심겨워 다시 높은 데 오르고 말려 하니/ 변방 경치에 애가 쉬이 끊어질 듯.//46)

⑥ ㉠시내는 평평한데 모랫벌 회고/ 된서리 내리고서 잎새 붉구나/갈 길이 험한 것은 한스럽지 않으니/강산 모습 조선과 같아서이네.//; ㉡산 높아서 조도(鳥道)만이 통하였고/길은 험해 굽은 길로 들어섰도다./여러분께 한 마디 말을 하노니/ 편안하게 살 때 위태로움 잊지 마라.//47)

46)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1]萬里關河道路長 天涯令節又重陽 中原客苦頭生白 北地秋光菊貼黃 樂亦增悲筮有響 醉將撥悶酒盈觥 明年欲作龍山會 達士何妨老更狂; [2]強向壚頭索酒嘗 此身醉處是重陽 愁來更欲登高罷 塞上風烟易斷腸.’

⑦ 계곡이 얼고 사람들 말이 없는데/찬바람에 나무는 소리내누나./수레 탄 무리가 달래주면서/ 동쪽으로 봉황성을 가리키누나.//48)

⑤는, 9일 황제의 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시간이 나서 지은 <重陽>이라는 시이다.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자 지은 시이지만 여기에서도 대주체와의 어긋난 감성,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 상태가 담겨 있다. 시절 좋은 중앙절이나客苦를 겪어 늙어 버린 데다 즐거움도 더 슬퍼진다고 한 데서 깊은 애상감마저 느껴진다. 고민을 털고자 술 한 잔 가득 마시거나 억지로 술을 구해 보나 근심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변방의 경치 속 향수만한 가득이라는 게 매우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밑줄). 이는 ⑥ 역시 마찬가지다. 9월 25일 행차 도중 조선의 경치와 닮은 것에 감회가 있어 지은 시(㉠)로, 어김없이 향수의 정서가 가득하다. 밥을 먹고 三道嶺을 넘으며, 또 절구 1수를 지었는데(㉡), 結句에,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말라고 한 데서, 늘 경계하고 삼가며 행동거지를 바로 해야 한다는 유학자적 신념도 읽을 수 있다. ⑦은 26일, 최두찬 일행들이 다들 추워하자 또 감회가 있어 지은 절구로, 추위로 다들 말이 없지만 동쪽으로 봉황성을 가리킨다는 데서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의 절실함을 엿볼 수 있다.

또 최두찬은, 9월 16일, 과거 시험을 보고 내려가던 길에 잠시 들른 중국 문사와 필담을 나누기도 했지만 이전과 같은 열락의 감성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만남을 무덤덤하게 기술할 뿐이다. 이날은 또 황제의 행렬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수레와 복식 제도는 상하 구별이 없고, 송·명의 옛 제도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한 데서 청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엿볼 수 있다.⁴⁷⁾ 20일은 강남 통주 사람들이 조선에서 돌아왔는데, ‘표류’라는

47)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川平沙面白 霜重葉心紅, 不恨行程險 江山似大東; ㉡山高通鳥道 路險入羊腸 寄語二三子 安居危不忘.’

48)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谷汜人無語 風寒樹有聲 車徒相慰勉 東指鳳凰城.’

공동 경험을 갖고 있었기에, 느낀 바가 있어 최두찬이 또 시를 짓기도 하며⁵⁰⁾ 22일은, 이러한 귀환 과정에서 심양인들과의 싸움도 겪게 되는데, 결국 최두찬과 통관의 중재로 분란이 해결되긴 했지만, 심양인들이 별의별 형태로 고향을 지르는 것을 보아 성품이 억센 것을 알 수 있다고 기록한 데서, 현지인들과의 다툼 속 몸도 마음도 극도로 지쳤음을 알 수 있다. 29일 봉황성에 도착, 표류인의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자, 이제 드디어 떠난 고국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 마음 또한 매우 착잡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월 2일 책문을 나서자, 사람은 없는 땅이었지만 의주와의 거리가 120리였다고 한 데서 이미 안도감,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 안정감의 감성 상태도 아울러 짐작해 볼 수 있다.

2) 역사 인식 속 청조에 대한 반감

한편, 최두찬의 『승사록』에는 이 시기에 특히 이전에는 크게 보이지 않던 역사에 대한 회고와 청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표현된 경우가 많은 것이 또 하나 특징이다.⁵¹⁾ 한 예로, 6월 30일, 위송관 양월(梁鉞)이, 홍화포

49) 이 시기, 최두찬의 시선에 포착된 중국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분량이 짧은 하나, 19일 심경에 도착해서는 웅장한 성곽과 궁실, 즐비한 저자거리 등에서 왕업을 일으킨 땅임을 볼 수 있다 했고, 성 밖 청 태조의 생가 및 왕공 이하 모두 말에서 내리라는 빗돌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다.

50)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君向江南我海東 天涯淪落所懷同 正如鴻燕相迎送 萬里歸帆各順風.’ 여기서 최두찬은 비록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표류라는 공통 경험으로 동류의식을 느끼며 각자 무사히 귀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51) 역사 인식은 비단 귀국, 송환길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강남 체험 기간인 5월 18일 여요현에 도착해 엄자릉의 고향이라 쓰인 돌 하나를 발견하고 느낀 바가 있어 시를 지은 일, 20일 회계현의 병서산을 넘으며, 山陰의 太平橋를 지나다가 謝安이 별장을 두고 내기 한 고사를 보고서 시를 지은 일, 6월 5일 명-청 각 왕조를 상징하는 代喻物인 당간-홍모에 얽힌 이야기 속, 존명배척 사상을 지닌 이방인에 대한 대주체의 반기움, 당혹감, 자기반성의 혼재된 감성들이 표현된 일 등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역사인식과 청조에 대한 반감이 귀국, 송환길에서 더욱 뚜렷하므로 논의의 편의 상 이 기간에 발견되는 대표적인 감성으로 귀속시켰다.

에 있을 때 전송하는 시에 ‘難夷’라 했다면 최두찬이 언짢은 태도를 보인 것이 바로 그것이다. 최두찬이, ‘춘추의 의리에 오랑캐이면서 중국에 나간다면 중국의 작은 나라가 되니 또한 小中華’인데, 굳이 오랑캐라고 배척한 것은 성인의 뜻을 살피지 않은 것이라며 대놓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자 양월은 “外夷라 한 것은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말한 것이지 낮추어 본 것이 아니니 오해 말라.” 한 데서 명의 전통을 이어받은 문사로서 주체의 자부심과 이미 청 왕조의 신하가 된 중국 문사 간의 오해 및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선의 차이도 느낄 수 있다. 역사 및 당시 변화되어 가던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귀국 송환길에서 읊조린 여러 懷古詩에서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① 견백(堅白)⁵²⁾을 논쟁하는 특출한 이 한 가문에 모였으니/시는 이들 아직까지 조왕의 후손이라 말하누나./ 이 땅에 부질없이 덩굴풀만 남았으니/ 석양에 말 몰고서 평원에 나왔노라.//

② 몽고족 일천 병사 밤에 문을 열었으니/임안(臨安) 땅이 다시는 송나라 땅 아니었네./오직 한 조각의 연루(燕樓) 있는 땅만 남아 고신(孤臣)의 죽지 않은 혼령을 제사 지내네.//

③ 요양의 성곽들이 아직도 그대론데/세상에선 정령위가 떠나서 신선을 배웠다 하네./ 변방 가을 9월에 모래바람 자욱하니/ 당 태종이 수레를 멈췄던 해와 흡사 하네.//⁵³⁾

52) 전국 시대 공손용이 주장한 것으로, 단단한 흰 돌은 눈으로는 흰 것은 알 수 있지만 단단함은 모르며, 손으로는 단단함은 알 수 있으나 흰 것은 모르므로, 2가지가 동시 공존할 수 없음을 이른다.

53)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②堅白囊錐萃一門 居人尙說趙王孫 此地空餘蔓草在 夕陽驅馬出平原;③鐵木千兵夜啓門 臨安非復宋乾坤 惟餘一片燕樓土 尸祝孤臣未死魂; ④遼陽城郭尙依然 世道令威去學仙 邊秋九月風沙暗 恰似唐宗駐蹕年.’

①은 최두찬이 11일 曲麤站에 다다라 잠시 쉴 때, 石門에 “영천에서 뗏목을 바꿔 탔다. 大明 萬曆 46년 戊午年에 세우다.”라고 쓰인 것을 보고, 조나라의 공자 平原君의 采邑이었음을 알게 되어, 느낀 바가 있어 지은 시이며, ②는 7월 18일 최두찬이 文山의 弔古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방에 “송나라 승상 신국공 문 선생의 신위[宋丞相信國公文先生神位]”라 적힌 구절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수레에서 내려 경건히 참배하고 지은 시이며, ③은 24일 太子河를 건너 遼陽城에 도착한 뒤 옛일에 감회가 있어서 쓴 시이다. 평원군의 채읍지에서(①), 문산의 조고지에서(②), 요양 성곽지에서(③) 각각 감회가 있어 지은 이들 시에서, 옛 자연물들은 그대로인데, 왕조는 사라져 버린 상황의 쓸쓸함이 묻어난다. 사라진 왕조이지만 여전히 그 터에 남은 자들이 옛 왕조를 기리고 있다거나(①), 몽고족에 의해 망해 버린 송에 대한 아쉬움을 宋朝 승상의 충절로 기억해내거나(②), 요양성에서 정영위 고사⁵⁴⁾를 활용하면서, 이어 고당 전투(안시성 전투)를 떠올리거나(③)⁵⁵⁾ 간에 모두, 최두찬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사실 懷古詩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의 한 종류로,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및 역사의 현장이 그 주요 제재가 되고, 登高와 조망, 역사 사실에 대한 영탄, 고적에 대한 회고의 감정을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표현은 대개 感慨的·애상적이고, 지난날의 사실에 가탁해서 현재를 풍자하는 기

54) 정영위는, 漢 초기 요동 출신 신선으로, 멀리 중국 강남까지 신선술을 익히려고 떠났다가 仙鶴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 이미 사람들이 바뀌어 아무도 자기를 아는 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정영위에 대한 여러 서사 층위 및 문학적 전승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안동준, 「요동선인 정영위의 문학적 전승과 그 의미」, 『도교문화연구』28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83~106쪽).

55) 태자하 하류에는 고구려의 요동성이 있고 그 부근에 태자하를 끼고 백암성이 있으며 신성·개모성·안시성 등도 요동성 등과 평야로 이어지는 지역에 있었던 만큼 이 지역 일대는 고구려의 핵심 지역의 하나였다. 최두찬은, 이곳 출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의미가 새겨졌던 정영위를 떠올리며, 동시에, 고국의 역사를 회고하는 정서를 시에서 함께 표현하고 있다.

능을 갖기도 한다.⁵⁶⁾ 그런 점에서 과거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옛일을 회고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비록 표면 상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어도 현 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비유적 표현일 수가 있다.

또 이러한 회고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최두찬의 역사 인식은 귀국, 송환길에서 가는 곳마다 옛 성현 및 고사 속 인물들의 고향이며 어떤 곳이라는 설명을 곁들이는 데서도 발견된다. 7월 4일 제노를 지나면서는, 가옥 및 촌락이 조선과 비슷한 풍경, 땅에 돌이 많이 수레가 갈 수 없는 지세(땅의 척박함), 오곡 익는 시기의 비슷함, 검소한 백성들(여성들-신발 만들기, 남성들-농업을 생업으로 함) 등 시선에 포착된 여러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날, 최두찬은 자신의 시선에 포착된 그 지역의 낮은 풍경들을 두고, 聖人の 유풍 때문이라 생각하고, 또 명산대천의 불분명한 한계를 보고 춘추 시대 제나라, 노나라가 서로 다툰 것을 떠올리는 데서, 나름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다. 19일에는, 일행 중 한명(高汗)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었다는 이유로 밭 주인에게 맞게 되는 일도 벌어졌으나 윤제국이란 사람이 화해를 도와주어 마침내 무마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두찬이, ‘노상에서 일이 자꾸 꼬이는 것이 한 번으로 충분치 않았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⁵⁷⁾’이라고 한 것을 보면, 최두찬과 그 일행들은 이전 강남 체험기간과는 달리 이 시기 대주체와 어긋남의 감성을 계속 보여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이전 시기에 보이던 화합, 정서적 동일화, 열락의 감성과는 분명 다른, 안타까움, 슬픔, 배고픔, 허탈함 등의

56) 懷古詩와 가까운 양식으로 詠懷詩가 있다. 영회시는 ①역사적 사실보다 개인적인 정회를, ②과거보다는 시인의 현재 처지나 감상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詠懷詩는 懷古詩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古迹이라는 말과 만나 詠懷古迹이라는 제목으로 쓰인 작품의 경우 회고시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김윤조, 『懷古詩의 전통과 「二十一都懷古詩」』, 『민족문화』39집, 한국고전번역원, 2012, 6쪽).

57) 7월 13일의 기록 참조.

부정적인 감성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8월 19일에는 문사 양수재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협객과 황금대의 두 가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는 이날 기록에서, 최두찬은 적잖은 충격을 받는다. 즉, 불의에 저항했던 荊軻나 高漸離와 같은 협객의 부재는 물론, 천하의 賢士들을 모았던 황금대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한 양수재의 답변에, 이미 오랑캐 땅이 돼버린 곳에서 쓸쓸함을 느낀 것이다. 청의 땅이 되어 버린 현실을 바꿀 협객도 없고, 賢士들이 모였던 황금대의 기억 또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최두찬은 <感古>라는 제목의 절구 한 수⁵⁸⁾를 짓기도 했다.

사실 明의 멸망은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였다. 漢族이 아닌 만주족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실을 목도하며 조선의 지식인이 느꼈을 심리적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꿀 수 없는 사실로 명백해졌을 때 그들의 대응 방식은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우로 나뉠 텐데⁵⁹⁾, 최두찬은 두 번째의 경우를 보여준다. 그렇기에 대주체와 거리화 담론을 형성하면서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明의 전통을 이어받은 소중화 사상으로 무장한 조선조 문신의 입장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22일은 또 난하에 도착해서 夷齊廟를 배알하였고, 벽 위에 건륭황제의 어제시가 있어 이에 읊시 한 수⁶⁰⁾를 짓기도 했다. 25일 산해관에 도착해서 는 오랑캐를 막는 천하 요새를 통해 오랑캐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와,

58)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九陌風塵滿目來 黃金到處起高臺 當時樂劇從遊地 但見紅兜往復回.’

59) 박동욱(2009), 앞의 글, 18쪽.

60) 해당 어제시는 다음과 같다. ‘公把丹忠已潤腸 採薇何事更盈裳 蒼姬天下罔臣僕 孤竹家中肯室堂 朝會清明頒甲子 綱常珍重薄成湯.’ 여기서, 이제의 충절을 높이 받들며 숭앙하는 역사 인식을 볼 수 있다.

명이 망함을 당하는 빌미가 되었음을 애석히 여긴 시⁶¹⁾를 짓기도 했다. 이 시는 처음에 이백의 <蜀道難>의 한 구절(一夫當關 萬夫莫開)을 따와 이야기한 뒤, 산해관을 통해 오랑캐들이 無血入城한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산해관(榆關)이 오랑캐를 막는 장소이나(1,2구) 오삼계가 이자성을 막고자 청군을 끌어들임으로써(3,4구), 결국 南明의 마지막 황제(永歷帝 朱由榔)가 미얀마에서 압송되어 죽임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황제의 행렬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또한 잘 드러난다. 최두찬은 “수레나 복식의 제도가 변한 것을 보고서 宋, 明의 제도가 사라졌음을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淸太祖의 무덤을 보고서 매우 건조하게 기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듯, 淸朝에 대한 거부감을 찾아볼 수 있다. 중화의 전통을 지키지 못한 明에 대한 아쉬움과 실질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는 淸에 대한 반감이 교차된 것이다. 그는 문집에서 한 번도 淸人이라 하지 않고 淸나라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쓰고 있으며, 문천상이나 夷齊廟 등 충의와 관련된 고장에 애착을 보이는 것 등도 바로 이러한 청조에 대한 거부, 정서적 거리화를 보여주는 징표들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조를 향해 비분강개한 어조를 격렬하게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중화의 적통을 이어받은 자존감을 표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최두찬이 남긴 『승사록』의 담론 구성 방식과 그에 따른 작자의 감성 변모 양상을 한번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승사록』은 프롤로그

61)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一路榆關控百蠻 南臨滄海北蛟山 不知淸祖從何入 前鑑昭昭永歷間.’

격으로 작품 제목을 『승사록』이라 짓게 된 동기, 제주에 있을 때 지은 시 몇 편, 표류하게 된 상황을 간략히 압축적으로 제시해 놓았고, 제주 출발부터 거의 매일의 기록을 날짜별, 노정별로 서술한 뒤, 에필로그 격으로 강남 땅에 대한 기록 및 묘갈명, 서문, 유사 등 기타 기록들을 별도로 기술해 두었다. 또 프롤로그 부분이 詩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에필로그 부분은 散文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특징도 발견된다. 기술 자체는 일기 형식이라 전체적으로 산문이지만, 처음과 끝이 서정, 서사의 구성인 데다 중간은 이것이 적절히 섞여 그야말로 씨실과 날실같이 서정-서사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도 『승사록』의 담론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담론 방식 중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을 제외하면, 본문은 다시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째는 제주 출항~보타산 표착(1818년 4월 10일~ 26일)까지로, 주체는 설레는 마음이었다가 풍랑으로 생사가 기로에 놓이면서 표류 자체가 주는 무서움, 불안함, 무기력함 등의 감성을 보여주며, 대주체와 조화롭지 못한, 즉 반동일화의 미학을 드러낸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에 대한 성찰과 함께 낭만적, 긍정적인 태도도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는 강남문화 체험기로, 이 시기는 한마디로 ‘열락(悅樂)-슬픔(悲)’의 감성 속 주체가 자기 인식을 보여준 시기이다. 육지에 도착하고 불안한 감성이 안정감으로 대체되자, 최두찬의 시선에는 이제 새로운 강남 풍경들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강남 문인들과 동류의식을 느끼며,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등, 이들과 정서적 합일을 보여준다. 그러나 늘 긍정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주체가 신세를 한탄하거나 현 상황을 서정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슬픔과 자기 인식 태도를 함께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시기 최두찬은 대주체와 함께 동조하고, 회고하며, 심정적 동일화를 이루는 면모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은 귀국·송환기로, 시간상으로는 6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간상으로는 석문에서부터 의주까지로, ‘불안(不安)’ 속 鄉愁의 감성과 청조

에 대한 반감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시기는 특히, 知友의 부재, 잦은 굶주림, 도로 및 날씨 사정으로 인한 행차의 불편함, 현지인들과의 갈등, 황제 행차로 송환 일정 지연 등 여러 악재가 겹친 데다가, 역사 회고 과정에서 보여준 칭에 대한 반감, 고국에 대한 향수 등으로 대주체와 긍정적이지 않은 관계를 엿볼 수 있었다(반동일화).

사실 표류란 향해 도중 갑작스럽게 해난을 당해 자기가 속한 지역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의 현지인에 의해 ‘발견’, ‘구조’되어 귀환하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이 표류 경험은 어떠한 형태로든 ‘記述’되었기에 전달될 수 있었으며,⁶²⁾ 그로 인해 표류에 대한 기억은 점차 축적되고 재생산될 수 있었다.⁶³⁾ 그렇게 기술된 표류 기록은 당시의 국제 관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착지와 경유지의 환경, 풍속, 문물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이는 대륙 중심의 단편적인 해석을 극복하고 유럽 중심적 해양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관점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해적, 변경, 경계인 등의 존재가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⁶⁴⁾ 더더욱 그러하다. 표류기는 타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내적 갈등과 새로운 인식, 그들의 내면에 미친 異文化의 영향⁶⁵⁾ 등을 경계인의 시선으로 본 풍경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주체-대주체의 관계 양상 속 불안정한 감성->안정감 속 열락의 감성->불안정한 감성 속 향수와 역사 인식 등은 주목된다.

62) 하루나 아키라, 「표류의 바다」, 『바다의 아시아 5 :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오모토 케이이치 외 3인 엮음, 김정환 옮김), 다리미디어, 2005, 197~198쪽.

63) 정성일, 「해남 선비 김여희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1662~1663년)」, 『한일관계사연구』43집, 한일관계사학회, 2012, 4쪽.

64) 조영현, 「후기 中華帝國 海洋史 연구의 최근 흐름과 글로벌 히스토리-중등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제언-」, 『민족문화연구』77집,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7, 324쪽.

65) 김선희, 「중심 공간으로서의 한일 경계 지역 연구-전근대 표류민을 중심으로-」, 『도사연구』12집, 도시사학회, 2014, 96쪽.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려면, 19세기 표류기 속에서 『승사록』의 담론구성 방식이 갖는 의미, 서정-서사의 관계가 작품의 미학적 결에 관여하는 방식, 강남의 장소성 및 서호 담론의 의미역 확장이 갖는 의미 등이 여타 표류기와의 비교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시간상, 지면상 여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선희, 「중심 공간으로서의 한일 경계 지역 연구-전근대 표류민을 중심으로-」, 『도시연구』12집, 도시사학회, 2014, 95~118쪽.
- 김성진, 『『江海乘槎錄』의 書誌事項과 唱和紀俗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26집, 동양한문학회, 2008, 141~174쪽.
- 김윤조, 「懷古詩의 전통과 「二十一都懷古詩」」, 『민족문화』39집, 한국고전번역원, 2012, 7~37쪽.
- 박동욱, 「최두찬의 『승사록』에 나타난 한중 지식인의 상호인식」, 『한국학논집』45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7~40쪽.
- 박명숙, 『『승사록』에 나타난 최두찬의 이념과 실천, 그리고 강남』, 『고전과 해석』 15,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3, 81~106쪽.
- 박선영, 「조선인 표류 기록의 역사교육적 의의와 활용 방안」, 고려대 석사논문, 2020, 1~85쪽.
- 박진성, 「신자료 梁知會의 『漂海錄』 연구」, 『어문연구』44집, 한어문교육연구회, 2016, 365~392쪽.
- 범금민, 「조선인이 본 청 중기 중국 풍정 - 최두찬의 『승사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08.
- 안동준, 「요동선인 정영위의 문학적 전승과 그 의미」, 『도교문화연구』28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83~106쪽.
- 오모토 케이이치 외, 『바다의 아시아 5 :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김정환 옮김), 다리미디어, 2005, 1~317쪽.
- 윤치부, 「표해류 작품의 종합적 고찰」, 『고전산문연구』1(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 1~438쪽.
- 이은주, 「19세기 표해록의 모습과 변모양상-최두찬의 <승사록>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9집, 국문학회, 2003, 151~180쪽.
- 정 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281~306쪽.
- 정성일, 「해남 선비 김여휘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1662~1663년)」, 『한일관계사연구』43집, 한일관계사학회, 2012, 433~467쪽.
- 조영현, 「후기 中華帝國 海洋史 연구의 최근 흐름과 글로벌 히스토리-중등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제언-」, 『민족문화연구』77집, 고려대민족문화연구

원, 2017, 321~357쪽.

최두찬, 『승사록,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표류기』(박동욱 옮김), 휴머니스트, 2011, 1~542쪽.

최래옥, 「표해록연구」, 『최부표해록연구』(葛振家 主編), 북경: 사회과학문헌출판사, 1995.

티엔 위, 「최두찬의 『승사록』에 나타난 필담과 시문 창화」, 선문대 석사논문, 2018, 1~109쪽.

D. Macdonel, 『담론이란 무엇인가』(임상훈 역), 한울, 1992, 1~157쪽.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Aspect of the Subject's 'Emotion'
in 『*Seungsarok*』

Park, Sang-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way the discourse is structured in 〈*Seungsarok*〉, a travelogue of *Gangnam* left by the 19th century Yeongnam scholar *Choi Doo-chan*(1779-1821), and the subtle changes in the author's sensibility accordingly. 〈*Seungsarok*〉 is the only record of *Gangnam* drift from the 19th century, and although it provides important clues in many aspects, it has long received less scholarly interest than other drift records. This study examines the discourse characteristics of 〈*Seungsarok*〉 and the emotional transformation of the author, which have not been studied in earnest until now, from a new perspective, *Pêcheux's* theory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Choi, Doo-chan*) and Subject(environment)'.

First, 〈*Seungsarok*〉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is from the departure from *Jeju* to the landing at Mt. Bota. It was exciting, but when a storm hit and life and death were at a crossroads, it showed the emotions of fear, anxiety, and helplessness that the drift itself brings. In this process, it presents an aesthetic of anti-identification that is not in harmony with the Subject. Second, in the *Gangnam* cultural experience section, the subject clearly reveals self-awareness within the emotions of 'joy and sadness'. As the previously uneasy emotion was replaced by a sense of stability, *Gangnam* was newly captured through the subject's gaze. The scenery, the sense of kinship and emotional unity with *Gangnam* writers are portrayed positively. In other words, various aspects of sympathy and emotional identification with the Subject are discovered.

The last part is the return/repatriation period (June 10 to October

2: *Seokmun* to *Uiju*), which is a period of general anxiety, including reminiscence of history that had not been discovered before and antipathy toward the *Qing Dynasty*. Overall, it is discovered that nostalgia in the sensibility of anxiety is the mainstream, showing a new sensibility that is out of sync with the Subject surrounding the subject and the aesthetics of anti-identification.

In fact, even within the discourse characteristics of the period of drift with a certain pattern of launch-drift-return, experiences at each period tend to create new meanings and emotions. In that respect, this study, which examines how the author's emotional changes due to movement in time and space are expressed in the text, provides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internal principles of the entire work by finding the fine textures of the work hidden between letters. At the same tim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opens a way to understand a single literary work.

Key Words *Choi Doo-chan*, <*Seungsarok*>, emotion, *subject-Subject*, identification-
'anti-identification'

논문투고일: 2024.04.18.

심사완료일: 2024.05.07.

게재확정일: 2024.05.08.

